

(13) 주차 학습내용

관련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수업내용)		
문화적 관광자원		1.1 유네스코 등재유산		
수업 내용	관련지식 및 유의사항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세계지질공원		
	실습내용 (실습절차 및 지도내용)	없음		
	실습결과 및 피드백 방안	없음		
	이론수업내용 (해당주차에 이론수업이 포함되는 경우 작성)			
준비물 (자료 및 도구)	재료(도구)명	규격	필요량	비고
	전자교탁		1	
	빔 프로젝트		1	

유네스코 등재유산

세계유산

세계유산은 1972년 유네스코 (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의거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지칭한다.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닌 각국의 부동산 유산이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종류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복합유산이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의 이점은 해당유산의 보호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지원을 높일 수 있는 데 있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도 작용하기 때문에 유산 소재 지역 및 국가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유산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형성한다.

또한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유산들은 국제적 협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산 보호에 대한 사업들에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존계획 및 관리의 수준이 향상되며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고용기회 및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한국의 세계유산목록

석굴암 . 불국사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 (1995년)
종묘 (1995년)	창덕궁 (1997년)
화성 (1997년)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년)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2000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년)
조선왕릉 (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2010년)
남한산성 (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2018년)	한국의 서원 (2019년)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2019.07.22.

세계유산 잠정목록

강진 도요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남해안일대 공동화석지
서남해안 갯벌	울산 대곡천 암각화군	중부내륙 산성군
순천 낙안읍성	창녕 우포늪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김해. 함안 가야고분군	고령 대가야 고분군	한양도성
염전 (전남 신안)	아산 외암마을	

자료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2019.07.22.

인류무형문화유산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의거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이다. 2005년까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제작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유네스코 프로그램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세계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 협약으로 발전되었다.

인류무형유산 등재 시 첫째, 무형유산의 국내적, 국제적 가시성 제고를 통한 무형유산의 이해를 증진 둘째,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가능 셋째.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보 및 경험 교환 지원 넷째, 무형유산 보전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연구, 전문가 및 활동가 지원 다섯째, 필요한 인력에 대한 훈련 및 규범마련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게 된다.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유산의 종류에는 서적(책)이나 문서, 편지 등 여러 종류의 동산 유산이 포함된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시 첫째, 보존관리에 대한 유네스코의 보조금 및 기술적 지원 둘째, 홍보 가능 셋째, CD-ROM, 디지털 테이프와 오디오 CD 같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세계기록유산을 가능한 많은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세계지질공원

#지질공원(Geopark)이란

지질공원이란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지구역사에 있어 지질학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시키고자 하는 필요 때문에 대두되었고, 2000년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결성된 후 2004년에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차츰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유네스코의 정의에 따르면 지질공원은 “단일의 통합된 지리적 영역으로서,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지는 명소경관이 보호, 교육, 연구,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연자원 및 문화자연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곳”을 의미한다. 즉 ①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② 생태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③ 우수 가치를 보유한 지역을 활용하여 교육과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추가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이다.

제주도 지질공원 명소 중 고산 수월봉에 비유하여 설명해 보면, 수월봉의 독특한 화산재 지층을 배경으로 그 속에 생태, 역사, 전설, 문화 등을 탐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많은 탐방객이 찾아오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지질공원은 지역주민의 행위제한을 최소화하고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자연의 보호와 이용을 조화시킨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질공원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발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다시 말해, 지질공원의 진정한 의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장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가치를 스스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 2010년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열린 유럽지질공원 총회에서 지질공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지질공원이란 과거로부터 배우고 익혀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Geopark ; Learning from the past,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국가지질공원 (National Geopark) 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존하고 교육,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 *법적근거: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을 말한다.

지질공원은 “단순히 지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사람[주민] 중심의 활동이 핵심” 이고,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보존,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계와 면적이 있으며, 생물, 고고, 역사, 문화를 모두 포함하여 사람(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지질공원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질공원 목록

(단위 : km²)

연번	공원명	위치	면적	인증일
계	10개소			
1	울릉도 . 독도	경북 울릉군	127.90	2012.12.27
2	제주도	제주도	1.864.40	2012.12.27
3	부산	부산 7개 자치구 (금정구, 영도구, 진구, 서구, 사하구, 남구, 해운대구)	296.98	2013.12.06
4	강원평화	강원도 5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2.067.07	2014.04.11
5	청송	경북 청송군	845.71	2014.04.11
6	무등산권역	광주2개 자치구 (동구, 북구), 전남2개군 (화순군, 담양군)	246.31	2014.12.10
7	한탄 . 임진강	경기도2개 시군 (포천시, 연천군)	766.68	2015.12.31
8	강원고생대	강원도 4개 시군(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태백시)	1.999.01	2017.01.05
9	경북 동해안	경상북도 19개소 (경주, 포항, 영덕, 울진)	2.261.0	2017.09.13
10	전북 서해안	전라북도 12개소 (고창, 부안)	520.3	2017.09.13

자료 : 환경부 홈페이지, 자연공원 지정현황 및 국가지질공원 정리

1) 울릉도 . 독도

지질학적 가치로서 신생대 화산활동 (독도는 460만 년 전 ~ 250만 년 전 화산활동, 울릉도는 250만 년 전 ~ 5천 년 전 화산활동)으로 인해 생성되었으며, 대표암석으로는 현무암, 조면암, 화산쇄설암, 부석 등이 있다.

울릉도 . 독도 지질공원의 지질명소는 23개소 (울릉도 19, 독도 4)이다.

* 울릉읍(4) : 도동 해안산책로, 저동 해안산책로, 봉래폭포, 죽도

* 서 면 (6) : 거북바위 및 향나무자생지, 국수바위, 버섯바위, 학포해안, 황토굴, 태하 해안산책로 및 대풍감

* 북 면 (9) : 노인봉, 송곳봉, 코끼리바위, 삼선암, 관음도, 성인봉, 원시림, 죽암

몽돌해안, 용출소, 알봉

* 독 도(4): 솟돌바위, 천장굴, 삼형제굴바위, 독립문바위

2) 제주도

다양한 화산지형과 지질자원을 지닌 제주도는 2010년 10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 지질공원의 대표 명소는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산방산, 용머리해안, 중문 대포 주상절리대, 수월봉, 천지연폭포, 서귀포 패류화석층이다. 제주도는 한반도 서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대륙붕 위의 화산섬으로, 제주도의 동쪽은 한반도 남해와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의 쓰시마 및 나가사키현과, 서쪽은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상해와 마주보고 있다. 서울과는 약 450km, 부산과는 약 280km, 일본 후쿠오카와는 약 330km, 중국 상하이와는 약 500km 떨어져 있다.

제주도는 한반도 남서쪽의 황해대륙붕에 있는 화산섬으로, 약 200만 년 전부터 역사시대까지 발생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 제주도는 동-서 길이가 73km이고, 남-북은 31km로 면적은 1,847km² 이다. 제주도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지형과 동북동 방향으로 신장된 타원형의 형태를 보이는 전형적인 순상화산이다.

3) 부산

부산은 인구 350만 내외의 우리나라 제 2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구, 해안, 산지에 뛰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하고도 독특한 풍광과 지질 및 지형유산을 보유함과 동시에 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생태,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 곳곳에는 교육적 가치가 뛰어난 다양한 특성의 지질유산들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기반시설 등 교육 및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질탐방로가 개발되어 있어, 다수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지질유산의 자연사적 가치와 유용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시형 지질공원이다.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연의 국내 최대의 현생 삼각주인 낙동강 하구, 고대 박물관으로 가는 바닷길 물운대, 공룡의 낙원을 뒤흔든 지진을 보여주는 두송반도, 불의 신이 사는 호수 송도반도와 두도, 호수에서 태어나 바다와 맞선 바위들의 향연 태종대,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와 이기대, 불타는 대지 장산, 신화가 잠든 바위산 금정산, 마그마가 빚어낸 천연 공예품 구상반려암, 다양한 암석들의 하모니 백양산 등 총 12개의 지질명소가 있다.

4) 강원평화지역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은 한반도 중부 DMZ (Demilitarized Zone) 인접지역의 지질, 지형적 유산을 중심으로 지질공원이 지닌 기본 이념들을 바탕으로 ‘충돌’의 지역을 ‘평화’의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칭이다. 평화지역은 강원도의 접경지역을 새롭게 지칭하는 용어이다.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의 지질학적 주제는 임진강대와 관련된 한반도 남, 북 지판의 ‘충돌’이다. 한반도의 남,북 대륙충돌을 뒷받침하는 화천백립암복합체와 같은 다양한 지질유산을 보유한 지역으로 한반도 형성과정 및 지체구조의 규명을 위한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적 비무장지대”로 본 지질공원의 인문적 배경이 된다.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은 일제강점기, 남북분단과 남북분단 이후 60여 년 동안 대치 등 근현대 한반도의 특수성이 모두 내재된 공간이다.

5) 청송

2017년 5월 5일부터 2021년 5월 4일까지 총 4년간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국내에선 제주도(2010년 10월)에 이어 2번째다.

청송에는 5억 4천만 년 이전 선캄브리아기부터 중생대,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질시대를 보여주는 암석이 두루 분포하고 있다. 특히 청송을 대표하는 주왕산에는 거대한 바위 7개가 산을 감싸 쥐듯 병풍처럼 늘어선 기암 단애를 비롯해 지질명소가 다수 밀집해 있으며, 청송군 전체를 포함하는 845.71km²의 지역으로 기암 단애, 주산지, 구과상 유문암 등 지질 명소 24곳이 해당된다.

* 총 면 적 : 845.71km² (청송군 전체)

* 지질명소 : 24개소

- ① 퇴적명소 : 청송자연휴양림 퇴적암층, 방호정 감입곡류천, 만안자암 단애
- ② 화성명소 : 기암 단애, 주방천 페퍼라이트, 급수대 주상절리, 병암 화강암 단애, 나실 마그마 혼합대, 면봉산 칼데라, 수락리 주상절리, 파천 구상 화강암, 청송 구과상 유문암
- ③ 수리명소 : 주산지, 청송 얼음골, 달기약수탕
- ④ 고생물명소 : 신성리 공룡발자국
- ⑤ 지형명소 : 연화굴, 용추협곡, 용연폭포, 절골협곡, 백석탄 포트홀, 송강리 습곡구조, 노루용추계곡

6) 무등산권역

2014년 12월 10일 환경부로부터 무등산권역이 가진 지질학적,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 6번째로 인증받은 국가지질공원이다.

광주시와 담양군 전역, 화순군 일부를 포함한 1,051.36km² 규모이며, 지질명소는 무등산 정상 3봉(천. 지. 인왕봉), 서석대, 입석대,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 적벽 등 20개소이며, 역사문화명소로는 아시아문화정당, 죽녹원 등 42개소가 있다.

광주, 전남의 진산(鎭山)이자 호남정맥의 중심 산줄기로 무등산은 8700만 년전 화산이 폭발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세로 기둥 모양의 암석들이 무등산에 산재하고 있다.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 등은 모두 ‘바위가(기둥모양으로) 서 있다’는 뜻을 여러 한자로 표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암석들은 주상절리라고 부른다.

7) 한탄강 . 임진강

한탄강 지질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으로서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한 한탄강과 그 하류에 위치한 임진강 합수부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의 한탄강과 임진강 일부 지역은 약 50~13만 년 전 폭발로 인해 형성되었으며, 그 당시 흐른 용암으로 인해 절벽, 주상절리와 폭포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지형과 경관을 갖게 되었다.

지질 . 지형학 특징을 보면 신생대 제4기에 일어난 화산활동으로 화산지형(현무암) 발달 우세, 한탄강을 따라 화강암 및 현무암 침식지형 발달, 열하 분출형 화산활동으로 인한 용암대지 형성과 이를 이용한 선사시대 문화 발달, 용암 분출로 인한 하천의 유로 변경 등 하천의 변화와 발달과정 특징이 우세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8) 강원고생대

영월, 정선, 태백, 평창 일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생대 퇴적암류를 보여주는 장소(지질명소 21개소)이며,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하천지형 및 카르스트지형이 발달하여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면적은 총 1,990.01km²이며 구역은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이다.

지질명소의 특징은 고생대 퇴적암류의 표식지로서 지질학적 .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국내의 대표적인 카르스트지형과 동굴이며,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감입곡류 하천지형이다.

- * 암석 및 화석 : 선돌,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쥐라기 역암, 금천골 석탄층, 장성 전기고생대 화석산지,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 * 카르스트지형 : 고씨굴,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화암동굴, 용연동굴, 고마루 카르스트지형, 백룡동굴
- * 하천 및 습지 : 요선암 돌개구멍, 한반도지형, 어라연, 물무리골 습지, 청령포, 화암약수, 소금강, 동강, 검룡소

9) 경북 동해안

경상북도 동해안을 따라 위치한 경주, 포항, 영덕, 울진의 아름답고 희소성 있는 지질 . 지형 유산을 보존 및 활용하고자 조성된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동해의 발달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지질 . 지형 명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의 지역별 명소로 지질공원의 가장 북쪽에 있는 울진군의 경우 주로 오래된 연령(약 20억 년~약 5억 년)의 암석과 관련된 4개소의 지질명소(덕구계곡, 불영계곡, 성류굴, 왕피천)가 있다. 태백산맥 인근에 위치한 울진은 서쪽으로 험준한 산악지형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보존된 다양한 자연 .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태관광과 지질관광을 함께 즐기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울진의 남쪽에 있는 영덕군에는 가장 넓은 연령분포(약 20억 년~약 2300만 년)를 보여주는 암석과 관련된 7개소의 지질명소(철암산 화석산지, 고래불 해안, 원생대 변성암, 영덕 대부정합, 죽도산 퇴적암, 경정리 백악기 퇴적암, 영덕 화강섬록암 해안)가 있다. 영덕군의 지질명소들은 대부분 해안과 접해 있어 동해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지형을 잘 드러낸다.

영덕의 남쪽에 있는 포항시에는 대부분 영덕보다 젊은 연령(약 6700만 년~약 1400만 년)의 암석과 관련된 5개소의 지질 . 지형 명소(내연산 12폭포, 두호동 화석산지, 달전리 주상절리, 구룡소 돌개구멍, 호미곶 해안단구)가 있다. 포항은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진 도시이지만 근 . 현대 문화와 지질 . 지형 유산 간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포항의 남쪽에 있는 경주시도 젊은 연령분포(약 5400만 년~약 2000만 년)를 보이는 암석과 관련된 3개소의 지질 . 지형 명소(남산 화강암, 골굴암 타포니, 양남 주상절리군)가 있다. 경주는 신라의 천년고도로서 수많은 역사문화유산을 지닌 도시이며, 지질 . 지형 유산과 조화를 이룬 신라인의 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

10) 전북 서해안권

면적은 총 520.3km² 이고 구역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에 있으며, 2017년 9월 13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

지질명소는 고창군에 운곡습지 및 고인돌군, 병바위, 선운산, 소요산, 고창 갯벌, 명사십리 및 구시포의 6개소이며, 부안군에 직소폭포, 적벽강, 채석강, 솔섬, 모항, 위도 6개소로 총 12개소이다.

고창-부안 지역은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보호지구로 지정되었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다.

3. 세계지질공원 (Global Geoparks) 이란 ?

지질공원으로서의 면모와 그 가치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UNESCO Global Geoparks Network)에서 인증받은 지질공원을 말한다.

첫째,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장소로서

둘째, 적당한 크기와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셋째, 자연 . 인문 . 사회 . 역사 . 문화 . 전통 등이 결합되어 있으며

넷째,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공원이다.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세계지질공원이란?

즉, 유네스코가 지질학적으로 뛰어나고 자연유산적으로 가치를 지닌 지역을 보전하고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지질공원으로 미적 가치, 과학적 중요성 및 고고학적 . 문화적 . 생태학 .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세계유산(World Heritage),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에 해당되지만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달리 행위 제한이 적고 보호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분포현황 (2019년 2월 기준)

보유개수	국가명
37	중국
12	스페인
10	이탈리아
9	일본
7	프랑스
6	영국
5	독일, 그리스
4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3	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2	베트남,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1	벨기에, 브라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란, 북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모로코, 네델란드, 루마니아, 탄자니아, 태국, 터키, 우루과이

자료 :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참고하여 정리

2019년 1월 기준 전 세계 39개국 140개소의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제주도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획득해 유네스코 자연환경 분야 3관왕에 등극했다.

2017년 5월에는 경북 청송군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청송군에 이어 2018년 4월 무등산권 지질공원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